

윤리와 사상 정답

1	②	2	⑤	3	④	4	②	5	③
6	①	7	②	8	⑤	9	③	10	②
11	①	12	④	13	③	14	②	15	④
16	⑤	17	⑤	18	①	19	⑤	20	③

윤리와 사상 해설

- [출제의도] 스피노자가 강조한 삶의 태도 이해하기**
그림의 강연자는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는 모든 인간은 자기 보존의 욕망을 갖는다고 보았다. 그는 신, 즉 자연은 유일한 실체이고, 세계는 신의 필연적 질서에 따라 움직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가 자연의 필연적 인과 질서를 인식할 때 최고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출제의도] 석가모니와 장자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석가모니, 을은 장자이다. 석가모니는 연기(緣起)의 법(法)을 이해하여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현상과 사물은 무상하므로 영원불변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장자는 도(道)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면 시비, 선악 등의 분별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며 그러한 차별 의식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소크라테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고 보고, 참된 앎을 갖출 때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의 비이성적인 부분이 이성적인 부분의 덕인 실천적 지혜를 따르면 품성적 덕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의지가 나약한 사람은 자신의 앎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공화주의 사상이 페팅, 을은 자유주의 사상이 벌린이다. 페팅은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상태를 진정한 자유로 보았으며, 자유의 실현은 법에 의한 지배로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벌린은 간섭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를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 보았다. 그는 국가와 타인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정약용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은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마음의 기호(嗜好)라고 보았으며, 사덕은 본성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형성되는 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이 선이나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보았다.
- [출제의도] 지눌과 원효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지눌, 을은 원효이다. 지눌은 자신의 마음을 직관하여 단박에 깨달은 후에도 습기(習氣)를 제거하기 위해 선정(禪定)과 지혜(智慧)를 함께 닦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효는 참과 거짓, 깨끗함과 더러움 등 일체의 이원적 대립을 초월하는 일심(一心)을 강조하며, 중생이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에피쿠로스와 벤담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에피쿠로스, 을은 벤담이다. 에피쿠로스는 참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여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벤담은 쾌락의 질적인 차이는 없고 양적인 차이만 있다고 보았으며, 공리의 원리를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 [출제의도] 아우렐리우스와 아퀴나스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스토아학과 사상이 아우렐리우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신과 자연의 공통된 본성은 이성이며,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파악하여 따를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아퀴나스는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종교적 덕의 실천과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인간이 이성으로 파악한 자연법을 따름으로써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인간의 마음은 성과 정을 주재하며, 성은 곧 이치라고 보았다. 그는 지(知)와 행(行)은 함께 닦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왕수인은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고 마음과 무관한 사물도 없다고 보았다. 그는 내 마음의 양지인 천리를 각각의 사물에서 온전히 실현하는 것을 격물(格物)이라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홉스, 로크, 루소의 사상 비교하기**
제시문 (가)의 같은 홉스, 을은 로크, 병은 루소이다. 홉스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절대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로크는 최고 권력을 가진 입법부가 신탁을 위반하여 권력을 남용할 때는 시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회수하여 새로운 입법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루소는 정치 공동체는 각 개인의 사적 이익을 초월하여 오로지 공동선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아스퍼스와 사르트르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아스퍼스, 을은 사르트르이다. 아스퍼스는 죽음, 고통 등을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한계 상황으로 보았다. 그는 인간이 한계 상황을 직시하고 주체적 결단을 함으로써 참된 실존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신에 의해 미리 구상되고 창조된 존재가 아닌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맹자와 순자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모든 인간에게 선천적인 도덕성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았다. 그는 무력에 의존하는 패도 정치를 비판하면서 인과 의로써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주장하였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통치자가 도덕 생활과 통치의 표준인 예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흄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은 흄이다. 흄은 도덕적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도덕적 선악은 외부 세계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을 바라볼 때 느끼는 시인과 부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았다.

- [출제의도] 심의 민주주의와 엘리트 민주주의 비교하기**
같은 심의 민주주의를 강조한 하버마스, 을은 엘리트 민주주의를 강조한 슈페터이다. 하버마스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공적 심의가 정당한 정치의 의사 결정의 핵심 요소라고 보는 심의 민주주의를 강조하였다. 슈페터는 민주주의를 인민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정치 엘리트의 지배라고 규정하는 엘리트 민주주의를 강조하였다.
- [출제의도] 이이와 이황의 사상 비교하기**
제시문 (가)의 같은 이이, 을은 이황이다. 이이는 발(發)하는 것은 기(氣)이고 발하는 까닭은 이(理)라고 주장하며, 사단과 칠정을 모두 기가 발한 감정이라고 보았다. 또한 기질을 바로잡아 기의 본연을 회복하면 이의 본연 또한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황은 이와 기가 모두 발한다고 보고,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위정척사 사상과 동도서기론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위정척사 사상이 이항로, 을은 동도서기론을 주장한 신기선이다. 위정척사 사상은 유교적 가치 체계와 질서는 지키고[衛正], 서양과 일본의 문물은 배척해야[斥邪]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도서기론은 동양의 도(道), 즉 유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서양의 기(器), 즉 서양의 발달된 과학 기술과 군사 제도 등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플라톤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은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를 비롯한 모든 이데아는 오직 이성에 의해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영혼의 욕구적 부분에 해당하는 덕을 절제로 보았으며, 모든 계층이 지녀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지혜의 덕을 갖춘 철학자가 통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 [출제의도] 노자와 공자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노자, 을은 공자이다. 노자는 인위적인 사회 제도와 규범에서 벗어나 본성에 따라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자는 준비친소(尊卑親疏)의 구별이 있는 사랑을 강조하였다. 그는 명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예악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밀과 칸트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밀, 을은 칸트이다. 밀은 질적 공리주의 입장에서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타인에 대한 희생이 사회의 행복에 기여하는 경우 그 희생이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칸트는 도덕 법칙이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명령이라고 보고, 도덕 법칙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지켜야 하는 의무라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하이에크와 케인스의 사상 비교하기**
제시문 (가)의 같은 하이에크, 을은 케인스이다. 하이에크는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케인스는 수정 자본주의 입장에서 시장 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황이나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